

드디어 '체 게바라'가 읽힌다

《체 게바라 평전》, 베스트셀러 상위 점령해

한 혁명가의 평전이 널리 읽히고 있어 출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찍이 사르트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부른 체 게바라의 삶과 사상이 국내에서 뒤늦게 평가받고 있다. 그의 휴머니즘적 삶이 현대인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출판 관계자의 분석이다.



《체 게바라 평전》(장 코르미에, 김미선, 실천문화사)의 판매가 호조를 띠면서 출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간 2주만에 9천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교보(비소설 1위)·영풍(인문사회 2위) 등 서울시내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를 점하고 있다. 교보문고에서는 종합순위 5위를 기록 중이다.

르네상스적 인간 '체 게바라'

실천문화사의 <역사인물찾기> 시리즈 열번째 책으로 출간된 《체 게바라 평전》의 '약진'은 좀 의외다. 이 책이 두툼한 볼륨의 본격적인 전기인 점도 그렇지만, 국내 독서계에서 체 게바라는 명성만큼 대접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게바라 관련 서적의 출간조차 드문 형편이었다. 민주화 열기로 뜨거웠던 1980년대에도 단 두권밖에 나오지 않았다. 앤드류 싱클레어의 《체 게바라》(한울림, 1984)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게바라 전기다. 122쪽의 알파한 부피인 이 책의 흡인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도 게바라에 대한 갈증은 얼추 달래줬다.

싱클레어는 체 게바라를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사르트르)으로 보는 평가에 동의하는 한편, 그를 르네상스적 인간으로 간주한다. 게바라가 39년의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워낙 다양한 삶을 살아서다. 게바라는 의사·은행가·외교관·게릴라·선동가·경제학자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게바라의 변별적 요소는 이런 팔방미인적 자질이 아니다. 싱클레어는 게바라의 특징을 "게바라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게바라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스스로 실현시켜 나갔다"고 말했다.

80년대 출간된 또 하나의 《체 게바라》(오월, 1988)는 그의 생애와 사상을 만화에 담은 것이다. 멕시코의 정치만화가 리우스의 <현대사상학교> 시리즈의 한권이다. 리우스는 "이 책은 게바라를 무조건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심각한 책'으로 규정했다. 번역서의 말미에는 게바라의 <게릴라전쟁>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1997년 게바라의 30주기를

맞아 전세계적인 추모 열기가 있

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추는 '시늉'은 했다. 한 시사주간지는 체 게바라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며, 냉소적인 시대에 게바라가 '균형추구실'을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출판쪽에서는 한 남매의 작업이 겨우 '면피'를 해줬다. 게바라의 기일에 맞춰 누이의 장편소설이 먼저 선을 보였다. 유현숙의 《체 게바라》(자음과모음)는 게바라의 생애를 소설로 형상화했다. 이어 유현숙씨의 남동생 유재운씨가 번역한 《체의 일기》(거리문학제)가 나왔다. '볼리비아 일기'로도 알려진 이 책은 게바라 최후의 육필 모음이다.

꿈 없는 세대에게 호소력 발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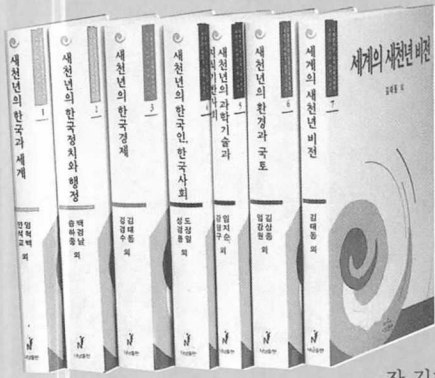
<시공디스커버리 총서>에도 《체 게바라》(은위영 옮김, 1999)가 있다. 이 책은 이번에 출간된 《체 게바라 평전》을 쓴 장 코르미에가 지었다. <시공디스커버리>의 《체 게바라》가 사진 화보가 풍성한 축약판이라면, 《체 게바라 평전》은 원판에 해당한다. 장 코르미에는 10여년에 걸친 자료수집을 통해 게바라의 생애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

실천문화사 이순화 편집장은 《체 게바라 평전》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꿈이 없는 세대에게 휴머니스트로서의 게바라가 호소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꿈을 상실한 젊은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 물론 매력적이지만, 책의 완성도는 이를 확실히 뒷받침한다.

《체 게바라 평전》은 스페인어권을 무대로 하는 불어 텍스트다. 그래서 출판사는 불어와 스페인어를 양수검장하는 번역자를 물색했고, 책임자를 찾아냈다.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긴 김미선씨는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 불어과를 나왔다. 장정 또한 게바라의 강렬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홍보용으로 배포한 체 게바라 브로마이드의 위력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학가에 붙여진 브로마이드는 순식간에 없어질 지경이다.

— 최성일 기자

평전·만화·일기·소설 등 다양한 형식에 담긴 체 게바라의 생애.



새천년 국가 비전 모색한 <새천년 비전과 전략> 시리즈

정책기획위 기획, 분야별 전문가 80여명 집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태동, 이하 정책기획위)가 기획한 <새천년 비전과 전략> 시리즈가 나눔출판에서 나왔다.

전 7권으로 구성된 <새천년...> 시리즈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 등 각 분야별 새천년 대처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정책연구보고서. 지난 한해 동안 정책기획위 위원을 포함, 각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한 연구성과를 실었다.

김태동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선진국들이 십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미래를 향한 자기개혁의 흐름에 합류하고자" 이 시리즈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는 이 시리즈를 출간하기 위해 여론과 해외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해 11월 시리즈와 같은 제목으로 공개대토론회를 열어 내용을 마무리했다.

이 시리즈가 내세운 종합적인 국가비전은 '세계일류 한국'. 각 부문별로 제시한 새천년 비전은 다원적 민주주의, 역동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정보 국가, 협력적 공동체사회, 아시아 중추국가 등이다.

시리즈 첫권인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임현백 외)는 국가비전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적 화합정치 ▲선도적 정부혁신 ▲지속적 경제개혁 ▲지식정보화와 교육혁신 ▲생산적 복지 ▲민주적 시민생활 세계 ▲공생적 환경공동체 ▲문화적 다원주의 ▲평화적 민족통합 ▲진취적 세계참여가 그 내용이다.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백경남 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참여민주주의의 동시 실천을 한국의 정치과제로 제시했고, <새천년의 한국경제>(김태동 외)는 금융·재정 등 부문별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그밖에 <새천년의 한국인, 한국사회>(도정일 외)는 공공성과 개방성을 가진 새천년 한국인상을 제시했고, <새천년의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사회>(임지순 외)는 과학기술 및 지식정보사회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검토했으며, <새천년의 환경과 국토>(김상중 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을 제시했다. <세계의 새천년 비전>(김태동 외)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0여개 국가의 새천년 비전을 살폈다.

- 김정은 기자

전문가들이 뽑은 좋은 책 2백권 소개한 CD롬 나와

<새천년을 위한 좋은 책...>, 삼성전자에서 무료로 배포



삼성전자가 좋은 책을 선정·소개하는 CD롬을 제작, 무료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천년을 위한 좋은 책 둘러보기 200선>이라는 제목의 이 CD롬은 일반인·청소년·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을 문학·철학·역사·과학·예술 등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책 선정에는 강철주씨(《책과 인생》편집부장)를 비롯한 전문가 6명이, 선정된 책의 소개에는 김연수씨 등 문인 8명이 각각 참여했다. 일반인을 위한 좋은 책은 <혼불>(최명희, 한길사),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정옥자 외, 효형출판)를 비롯한 85종,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으로는 <광장>(최인훈, 문학과지성사),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백유인 외, 두리)를 포함한 60종, 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으로는 <몽실언니>(권정생, 창작과비평사)를

비롯한 55종이 선정됐다. 이 CD롬에는 선정된 200종 외에 다양한 기획기사가 실려 있다. '허병두의 좋은 책을 고르는 11가지 비법'이나 '386세대 주부들을 위한 유아독서지도'는 활용도가 높은 일종의 실용 '안내문'이다. 세명의 여교수가 추천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역시 세명의 정신과 의사가 추천하는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책' 등도 유용한 도서목록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이 CD롬에는 신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수 유승준의 뮤직비디오 '비전'을 실었다.

비롯한 55종이 선정됐다.

이 CD롬에는 선정된 200종 외에 다양한 기획기사가 실려 있다. '허병두의 좋은 책을 고르는 11가지 비법'이나 '386세대 주부들을 위한 유아독서지도'는 활용도가 높은 일종의 실용 '안내문'이다. 세명의 여교수가 추천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역시 세명의 정신과 의사가 추천하는 '몸과 마음에 약이 되는 책' 등도 유용한 도서목록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이 CD롬에는 신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수 유승준의 뮤직비디오 '비전'을 실었다.

<새천년을 위한...>을 제작대행한 윤희상씨(에드포인트 대표)는 "삼성전자의 이미지도 홍보하고, 출판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이 CD롬을 계기로 컴퓨터 세대 사이에서 독서 열기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CD롬은 전국 일천여곳의 삼성컴퓨터 대리점에서 방문객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 김정은 기자